

“나, 조선족 맞다고요”

글과 사진 □ 서정원(울산 · 경남지부 행정지원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연변 길림성 조선족자치주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곳 연길시에 있는 연변 결핵병방치소와 우리 대한결핵협회는 1990년대부터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민족으로 결핵을 퇴치한다는 같은 목표 하에 서로 우의를 다지면서 친밀한 교류를 다하여 왔다. 8월 27일부터 30일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최선규 팀장님, 전북지부 김종석 님, 대전충남 지부 신준수 님과 동행하였다.

· 백두산 천지에서 함께





연변 방문은 마치 우리나라 지방의 어느 도시를 다녀온 느낌이다. 시내의 간판 모두가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니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

도착한 첫날 오후 4시에 연길에 있는 연변 결핵병방치소를 우선 들러 박덕복 소장님을 만났다. 이곳에는 35명의 직원들이 있고 중증 결핵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단다. 하루 30명 정도의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는데 근래 이 지역의 일반병원에서 결핵환자 진료를 하지 않으려고 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한다. 연변 전체에 2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연길시에는 우리민족이 약 43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다음날 결핵병방치소 관계자분들의 배려로 백두산 관광을 하게 되었다. 가는 도중 아침을 먹게 된 '두만강 식당'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전날 저녁에 대접을 받은 이름 모를 갖가지 기름진 중국음식에 질려서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그 맛이 직접 담근 우리 옛날의 시골 된장 맛이였다. 놀라웠다. 중국에 와서 이런 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아서인지 입맛 없는 아침,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울 수 있었다. 그래 맛다, 외국에 와서까지 된장찌개와 김치를 찾는 걸 보니 그 쪽 사람들 말대로 나는 영락없는 '조선족'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불렀다. 연길에서 차로 새벽 5시 30분 경에 출발하여 산에 도착하니 10시가 훨씬 넘었다. 산 입구에서 백두산 천지 바로 아래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다. 차에서 내려 천지에 오르면 눈앞에 펼쳐진 놀랍고도 신비로운 풍경은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천지와 함께 펼쳐진 주변의 광활함과 장대함은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덧없음을 깨닫기에 충분하고 또 충분하였다. 머리 위로는 파란 하늘, 눈 앞에는 광활한 산과 푸른 평야가 펼쳐져 있고, 천지의 질고 푸르른 물이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 우리 일행은 눈앞의 황홀한 풍경에 더없는 행복과 평화를 느꼈다. 내 삶이 추잡하다고 느낄 때 나는 백두산과 천지를 떠 올리게 될 것이다.

아 참, 천지에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1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단체로 지나가면서 서로 지도원 동무, 지도원 동무, 하기에 혹시 북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어 보았더니 “평양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한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반갑습니다.” 라며 먼저 인사를 해 왔다. 정말로 반가웠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쪽에서 백두산을 오르게 될 날을 생각하게 되었다. 백두산을 내려와 우리는 천지의 물이 떨어진다는 장백폭포를 둘러보았다.

셋째날인 29일 우리는 연변 훈춘시 결핵방치소를 방문하였다. 그 곳 직원들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었다. 서울 시내 큰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연습되고 인위적인 서비스와 친절이 아닌, 마음으로 정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간적인 친절함 말이다. 그 정이 연변에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도문시에 위치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인 국문(계단을 올라 북한쪽을 볼 수 있게 만든 건물 탑에 올라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다. 북한 사람들과 북한 건물과 집들이 보였다. 저 도문강 다리만 건너면 북한인데,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반가운 마음 그러나 만날 수 없는 처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행은 우리민족이 연변에 처음 자리를 잡고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이 활발했다던 용정시를 찾았다. 먼저 민족시인 윤동주 님이 다녔다던 대성중학교를 찾으니 당시의 건물을 보수하여 복원한 교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용정시에서 조금 벗어나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야산에는 일송정이 있었이 있었고, 정자에서 내려다보니 해란강이 흐르고 있었다. 예전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뜻과 의지를 되새기며 비록 중국땅이지만 마음속에는 우리민족의 혼과 연변에 사는 우리 조선족들에 대한 애정 등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돌아오는 날인 30일 아침, 우리 일행은 연길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전주비빔밥을 먹었다. 다시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 날에 중국 땅에서 전주비빔밥을 먹고 출발하더니 약간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보건데, 어찌할까나? 나는 연변에 정이 들고 말았다. 연길 시내지만 바로 이면 도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개발이 덜 된 70년대 우리나라 시내처럼 약간은 촌스런 모습들, 그러나 왠지 인간미가 느껴지는 풍경들, 내 안에서 연길은 이미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다.

2009년이면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중국 연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지금의 서울 가리봉동 연변거리를 나는 드나들 것 같다. 개발과 현대화, 도시화에 한창이면서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살아있던 그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고 그리워하며 가리봉동 연변거리를 생각없이 떠올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연변의 결핵병방치소와 우리 대한결핵협회는 결핵퇴치라는 '같은 길을 가는 동지애적인 우정'으로 언제까지나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